

찬 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435장) 다 같 이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 기 도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지침

- ① 각 가정의 신앙 세대주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합니다.
- ②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 ③ 수고한 농부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 ④ 예배 후에 음식을 장만하여 가족, 친척, 이웃과 함께 교제합니다.

추 석 감 사 예 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부제일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 338-146

☎ 374-6161~3, 374-6168(FAX) www.sjch.kr

예 배 순 서

예배의 부름 신 26:10-11 인 도 자

모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찬 송 공중 나는 새를 보라(588장) 다 갈 이

1.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 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어냐
2.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3.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4.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 도 가족 중에서

성 경 봉 독 시편 65:4,10 인 도 자

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¹⁰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씨에 복을 주시나이다

설 교 『은혜와 감사』 인 도 자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 했습니다. 영국의 한 시인은 “주님!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게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 기도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서 1/10에 해당하는 6억 인구의 하루 생활비가 1달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가 없는 사람들의 수가 20억이 넘습니다. 식수 시설이 없어서 아 물이나 퍼 마시는 사람들의 수는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서 우리가 이만큼 살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윗의 감사 시로 그는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예배의 자리로 부름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그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은 어떤 일 보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실의 축복을 노래합니다.

10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씨에 복을 주시나이다” 다윗은 자기 백성들의 산업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풍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해도 우리의 가정과 산업에 결실의 축복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고랑을 내시고 축복의 물줄기를 대셨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셔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십시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행복한 생애를 살도록 이끌어줍시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